

## 필리핀 대선 정국 현황

### 1. 필리핀 최근 정치현황 개요

#### □ 2010년 5월 10일 대선 및 상하원/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 예정

- 대통령(임기 6년): 현 아로요(Gloria Macapagal Arroyo) 대통령 임기 '10년 6월말
- 상원(임기 6년): 총 24석 중 12석 대상
- 하원(임기 3년): 총 238석 대상
-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선거대상 직위 총 17,500여개

#### □ 대선정국 전망 : 현재까지 1강-2중-1약 구도

대선후보	여론조사 결과(%)		변화(% point)
	09.12.5~12.10	09.12.27~12.29	
Aquino (자유당)	46	44	-2
Villar (국민당)	27	33	+5
Estrada (전대통령)	16	15	-1
Teodoro(여당)	5	5	0

출처: Social Weather Station(정치 여론조사 기관: "SWS")

- '10.1.22자 발표된 SWS 조사결과, 선두 주자인 Aquino와 Villar의 격차는 8% point 차이로 좁혀지고 있음.
- 필리핀 정치의 아래와 같은 여건상 특정 후보의 결정적 우세를 예측하기 곤란함.

- 인물 및 이미지 중심 정치
  - 정치세력간 이합집산 빈번
  - 대규모 정치자금 소요
- 다만, '10.2.9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후보별 공약이 발표되면 대선 정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

- 현 아로요 정부는 집권기간 중 5%대의 경제성장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, 2004년 대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및 끊임없는 정부 인사들의 부패, 실정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심화
- '09.12.8일자 발표된 SWS 조사결과 현정부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 30%, 불만족도 50%

#### □ 민다나오 정치 폭력 사태 영향

- '09년말 민다나오(Maguindanao)주에서 필리핀 역대 최악의 정치 폭력으로 57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이래 최초로 민다나오주에 대해 12.3일자 계엄령 선포
- 살해사건 주모한 현지 주지사 세력 및 사병 조식 검거로 12.12일자 계엄 해제
- 금번 민다나오 정치폭력 및 계엄령 여파로 필리핀의 구조적인 정치적 불안이 재현되었으며, 금년 대선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정치폭력 재연 가능성 우려

## 2. 유력 대선 후보별 장단점 분석

### □ Noynoy Aquino 자유당 부의장(상원의원)

- Benigno Aquino 전 상원의원과 Corazon Aquino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후광과 도덕성이 강점
- 의정활동 미약, 행정 경험 및 카리스마 부족, 대중연설력 취약

### □ Manny Villar 국민당 총재(상원의원)

- 필리핀에서 드물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및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어필하는 이미지 및 자금동원력이 강점
- 구세대 정치인으로 개혁의지가 의문시되며, 상원의장 재직시 마닐라 주변 주요도로(C-5 Road) 건설 구간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 유리하게 연장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논란

### □ Gilbert Teodoro 전 국방장관(여당 후보)

- 탁월한 대중연설 능력, 변호사 시험 수석합격 등 개인적 역량, 젊은층의 지지 및 여당의 선거조직 프리미엄이 강점
- '09년 대형 태풍 피해시 재해대응 주무장관으로서 역할 미약, 전국적 지명도 부족, 특히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당 후보로서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

### □ Joseph Estrada 전 대통령

-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력 견고
- 부패 정치인, 실패한 대통령으로서의 오명 등의 약점으로 실제 당선 가능성은 미지수

- 다만, Estrada는 실제 당선 가능성보다는 유세기간 중 유력 대선후보와 연대함으로써 King maker로서 역할을 모색하고, 이를 통해 정치적 대가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꾸준히 제기
- Estrada가 어느 후보와 연대할지에 따라 대선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

### 3. 아로요 대통령의 하원의원직 출마 및 내각제 개헌 논란

#### □ 아로요 대통령의 하원의원 출마설에 대한 여론

- 야권은 아로요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서 부정부패 의혹을 조사받을 경우에 대비, 의원 면책특권 또는 대통령 탄핵 발의 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
- 더불어, 하원의장직에 진출하여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해 궁극적으로 총리에 올라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과 의혹 제기
- 대중 여론 또한 아로요 대통령의 하원의원직 출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
  - 아로요 대통령이 하원의원직에 당선되더라도 의원내각제 개헌 및 대통령 탄핵 발의를 위한 원내 60명선의 지지의원 확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

### 4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#### □ 연내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필리핀 정부내 절차 조속 이행 촉구 필요

- 필리핀의 구조적인 정경유착 관행, 특히 정부 사업추진여부, 사업실시 기관 담당관 인사 등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,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필리핀 정부내 의사결정 절차가 가급적 선거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 필요

- 선거기간 중 또는 신정부 수립 이후 추진 사업 지연에 대한 대비 필요

□ 선거 전후 정세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 요망

- 선거 기간 중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 및 선거 이후 정국 변화가 가져올 추진사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요망

**【EDCF 필리핀주재원 제공】**